

꺾직한 현안마다 소통·신뢰로 돌파...‘상생정치’ 주역

■ 우윤근 원내대표 리더십 주목

12년만에 예산안 시한내 처리
세월호특별법·부동산 3법 등
야당의 역할도 최선 다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계속 충돌만 해오던 여야 관계가 우 원내대표의 등장 이후 원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예산안을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처리했고 각종 쟁점 법안들도 하나 둘 합의 처리해가고 있다. 드디어 상생의 정치가 꽃을 피우고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유연한 소통과 신뢰의 리더십=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재연되던 국회 본회의장과 로텐더를 여야 대치는 사라졌다. 대신 합의처리 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다. 여야 대치가 길어지고 있을 때면 우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와 ‘원샷 합의’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곤 했다. 두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세해 예산안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국민안전처 신설안 등 정부조직법 ▲부동산 3법 등을 처리했거나 처리기로 합의했고, 공무원연금 개혁안·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같은 쟁점에 대해서도 시한까지 합의를 이뤄낸 상태다. 합의 과정도 비교적 순조로웠다.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선 야당의 경우 강경파의 반발로 합의를 두 번이나 뒤집었지만 우 원내대표 취임 후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만큼 우

원내대표가 당내 동료 의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우 원내대표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성격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평가다. 우 원내대표는 늦깎이로 사법시험 32회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권에 뛰어들어 대기만성형이다. 때문일까. 항상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위한다. 쉽게 흥분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나서지도 않는다. 우 원내대표는 “협상을 할 때 ‘이 정도면 과하지 않다’ 싶을 때 동의를 해야 한다”며 “양쪽이 다 살고, 패자가 없어야지 한쪽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곤 한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내가 만난 야당 정치인 중에 최고다”고 말할 정도로 우 원내대표를 신뢰하고 있다. ◇야당의 역할에도 최선 다해=우 원내대표가 여당과의 합의를 매번 이끌어내고 있지만

야당으로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 당내 강성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는 이유다. 그는 누리고정 예산 논란,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비리·방위산업비리) 국정조사,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 등 쟁점이 발생했을 때 날선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회의장을 향해서, 때론 협상 상대방인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잊지 않고 항상 협상을 이끌어 냈다. 우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게 하나 있다. 바로 개헌이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는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수없이 밝혀왔다. 그의 꿈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승용 “정권교체 헌신하겠다”

새정치 최고위원 경선 출마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여수 을·사진)이 내년 2월 8일 열리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과 실정으로 국민의 삶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며 “계파주의의 낡은 장벽을 넘어 정권교체를 위한 당심과 경제회생을 바라는 민심의 요구에 헌신하겠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주 의원은 이를 위해 ▲고질적 계파주의와 장외 투쟁 일변도의 정치행태 청산 ▲기득권이 아닌 인제 우선의 공천 혁명 ▲중앙과 지방, 지도부와 당원의 소통 강화 ▲민생 제일주의 정치혁신 ▲수권정당 체제 구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3선의 주 의원은 새정치연합 사무총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비노(비 노무현)계로 분류된다.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고위원 주자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주 의원은 자연스럽게 호남의 대표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다 김한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노 진영의 전폭적 지원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내 관계자는 “컷-오프 통과는 무난할 것이며 호남 표심의 결집과 비노 진영의 지원 강도에 따라 본선에서 1~2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치후원금 모금 허용
소액기부금 실적따라
국고보조금도 차등해야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액기부금 모금 실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임채진 조사관)는 25일 발간한 ‘정치후원금 기부 현황과 활성화’ 자료에서 “독일이나 미국처럼 소액기부금 모금 실적이 보조금 배분에 반영되도록 해 정당과 정치인의 모금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의석수와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지만, 소액기부금 실적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것이다.

정당의 후원금 모금을 일부 허용하고 소액후원금 모금 실적을 연계하면 국고 보조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논리다. 입법조사처는 후원금 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포인트 기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종류 확대 ▲정치자금 공개 ▲정치인의 선거공약·의정활동 실적 인터넷 공개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법단체의 기탁금이나 후원금 기부를 부활시키는 것은 소액 다수 기부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전면 허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2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 국립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 영령과 시민들을 향해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 것을 사죄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함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희 “유신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함께 해달라”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

광주 민주 영령들에 사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25일 “시기는 대로 한 가지 생각·행동만 강요되는 유신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 국립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에서 2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성원한 진보정치의 분열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광주영령들과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세력이 단결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헌신하겠다”며 “말할 자유, 모일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함께 말하고 행동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강제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권력의 시늉이 돼 세기의 오판을 내렸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위헌의 증

거 없이 당을 강제 해산시키고 의원직을 빼앗더니 이제는 국가보안법으로 모든 당원을 묶어매고 있다. 정치 회복의 시대가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국립 4·19 민주묘지에 이어 이날 5·18 묘역을 참배한 이 전 대표는 26일에는 부산 민주공원을 찾아 민주 영령과 시민에게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해 사죄하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권發 기업인 가석방론

野 반발 속 성사여부 관심

여권 발 기업인 가석방 주장이 잇따르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최경환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도 (가석방에 대한) 의견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총수의 결심이 없으면 못 하는 현실”이라며 “경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내년 설이나 3·1절쯤 일정 형기를 채운 일부 경제인에 대한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형법 72조에 나온 가석방 요건(형기 3분의 1 경과 후 가능)을 감안할 때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G넥스원 회장 등이 대상으로 꼽힌다. 문제는 야당의 반대와 국민의 정서. 특히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일명 ‘땅콩 회항’ 이후 대기업 총수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업 윤리에 대한 국민의 자각이 더 엄격해진 시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인 사면·가석방에) 공약 등 그간의 언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에서도 구속 재벌 총수에 대한 가석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22.0%에 불과했다. 반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58.1%로, 찬성 의견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1636 결과 **민음소망** 알려주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1588, 1544, 1644 등과 같은 **대표번호 서비스**로 1636 뒤에는 업종, 상호명 등 모든말이 전화번호가 되는 차세대 음성인식 통신 서비스입니다. 1636전화걸고 사용중인 상호를 말씀하시면 연결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기존에 사용하던 숫자 번호에 **한글번호**를 커버링 하는 방식으로 1636을 통해 전화를 걸면 기존에 설정해두신 숫자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꿀필요 없이 한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1636 음성인식서비스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시리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S보이스 서비스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세계 1위의 음성 인식 기술회사인 뉴왕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眞眞서안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주)콜피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625대만리는만리도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민들레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본사 프랜차이즈입니다.

착한소장수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박리다매!! 손님께 드시고 업주는 작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용 맞춤프랜드로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